

Our Proposal of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Corrugated Fiberboard for Outer Packaging

친환경형 골판지를 사용한 외장케이스 제안

S. 스텝키 / 랭고(주) 디자인 · 마케팅 센터

I. 도입

당사는 다양한 산업이나 기업의 여러 포장 니즈에 응하여 물류와 윤택한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최적의 포장 개발 · 제안 · 제조를 포함한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군마현과 주변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에 푸드의 [곤약젤리 소다계 시리즈]의 외장 케이스[사진 1]에 대해 디자인과 마케팅 입장에서 개발 프로세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제품과 외장 케이스 개발의 배경

이에 푸드가 제조한 [곤약젤리 소다계 시리즈]는 한입 크기의 곤약 젤리를 1봉에 6개 넣은 상품이다. 타겟은 부모, 자녀 쇼핑객으로 주로 슈퍼나 역의 매점 등에서 팔리고 있다.

[사진 1] 곤약젤리 소다계 시리즈 외장케이스



종래는 상품의 FLAVOR를 상기시키는 소다계 음료의 시즐감을 강조한 패키지 디자인이었지만 2021년 봄 동사의 다른 시리즈 곤약 젤리의 패키지 리뉴얼을 당사가 담당하여 동물 일러스트를 채용한 [ZOO 시리즈]로 디자인을 바꾼 것으로[사진 2] 상당히 호평받았으며, 판매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그 실적으로 2022 일본 패키징 콘테스트 ‘과자 포장

[사진 2] ZOO 시리즈



부분 상 을 수상한 [곤약젤리 소다계 시리즈] 디자인 리뉴얼을 의뢰받았다. 리뉴얼 대상은 상품 패키지(연포장)와 외장 케이스(운송용의 골판지상자)이다.

III. 목적과 기대된 효과

당시 [곤약젤리 소다계 시리즈] 리뉴얼의 목적은 매상을 목적으로 쇼핑객의 눈을 들어 오는 패키지 디자인을 설치해 판매를 늘리는 것이었다. 여기서 작년의 [ZOO 시리즈]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한 이 프로젝트는 바다표범, 펭귄, 돌고래의 일러스트를 도입한 디자인의 [수족관 시리즈]로 전개하는 것을 결정하였다[사진 3].

또한 상품 패키지의 리뉴얼에 부합한 외장케이스도 디자인을 혁신해 미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것이 아이에 푸드의 요망이었다.

젤리와 같은 식품은 점포에서 판매할 때 외장케이스에서 꺼내어 진열대에 진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봉한 외장케이스를 진열대 대신에 그대로 진열하는 것이다. 외장케이스의 디자인이 매력적이라면 소점포 측에서 상자 그대로 진열하는 것이 늘어서 그것 자

[사진 3] 수족관 시리즈



체가 볼륨 진열이 되어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외장케이스에 미용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IV. 실현하기 위한 과제

리뉴얼 전에 [곤약젤리 소다계 시리즈]의 외장케이스는 극히 일반적인 [차 라이너]의 골판지상자에 상품별로 기재한 것이었다.

미용성을 높이기에는 상품 패키지에서 전개한 그래픽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 외 상자의 소재 그 자체를 인쇄 적성·식별성이 높은 [백색 라이너] 골판지로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백색 라이너는 차 라이너보다도 코스트(비용)가 더해지므로 코스트 업은 피하고자 하는 아이에 푸드에 있어서 좋은 제안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상품의 KEY 비주얼의 하나인 백색 바다표범이 흰색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역시나 외장케이스도 통일하고자 하므로 ‘미용성·디자인의 재현성’과 ‘코스트 억제’를 양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V. 신소재의 제안

백색 라이너의 골판지 사용이 어렵다고 판명되었으므로 미용성에 있어서 우수하며 코스트업이 적은 외장케이스용 소재로써 당사가 제안한 것이 바로 [스마트 에코 화이트(이하 SEW)]이다. SEW는 무표백·무착색 재활용지 100%의 백색계 라이너이며 당사가 수년 전에 개발한 비교적 새로운 오리지널 소재이다. 색은 백색 라이너보다 밝지만 따뜻함이 있는 그레이로 매트감이 있어 독특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당사에서는 환경에 배려한 소재로써 제안하지만, 재생지 특유의 러프한 질감과 약간 백색감이 떨어지는 색 조합이 개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차 라이너와는 분명하게 다른 식별성·미용성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코스트가 백색 라이너보다도 낮은 점에서 이 조건에 적합하다. 여기에서 SEW로 디자인 안을 전개해 아이에 푸드에서 제시한 미용성·코스트 면에서도 문제없으며, 또 그래픽 디자인의 재현성이 높은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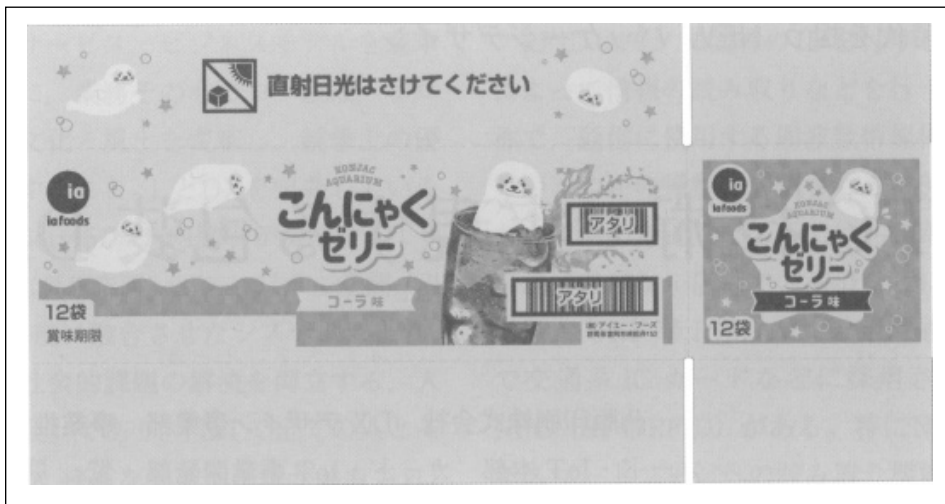
VI. 소재 특성과 디자인의 상성

SEW가 선정된 이유의 하나로는 ‘백색 잉크가 눈에 띈다’는 것이 제안되었지만 그 특징은 골판지 디자인의 가능성을 넓혀 새로운 매력의 창출로도 연결되고 있다. 백색 잉크와 SEW의 옅은 그레이와의 유연한 콘트라스트(대조)는 심플하면서도 높은 아름다

[사진 4] 백색 라이너 차용 디자인 안



[사진 5] SEW 차용 디자인 안



움을 연출하는 것에 적합하며 백(白)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음료의 시즐감이나 화장품 상품 등의 청량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합하다. 이러한 안건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바다표범의 백색을 살리는 것에 적합하지만[사진 5] 그 외에도 디자인 효과를 드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VI. 고객과 시장의 평가

상품의 봉투와 외장케이스의 디자인을 리뉴얼하여 2022년 봄에 판매 개시하고 나서 [곤약젤리 소다계 시리즈]의 판매 수는 늘고 있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도입한 디자


인으로 점포를 방문한 부모와 자녀 고객들에게 어필되어 한눈에 사고 싶어지는 것은 물론 당초 전략대로 미용성이 높은 외장케이스를 차용한 것으로 상자 그대로 놓고 판매하는 점포가 늘었다는 것도 판매촉진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품 그 자체보다도 훨씬 넓은 면적을 갖는 외장케이스는 수송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쇼 핑객의 시선을 의식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것이 훌륭한 판촉 톨로 기능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이에 푸드는 패키지의 판촉 효과에 관해 인식을 바꿔 해당 프로젝트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상품 기획이나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다.

Ⅶ. 마무리

고객의 요망하던 ‘미용성을 갖춘 외장 케이스’를 실현해 상품 판매 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제작·제조를 담당했던 당사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외장케이스에서 사용된 SEW는 재생지 특유의 러프한 질감인 것에서 한눈에 에코 소재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기업의 환경 배려에 대한 열정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로 SEW가 차용되었던 것은 종래 골판지와 비교해 코스트 업이 적다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장 소재의 에코(ECO)화로 결부되는 것이다. 최근 아이에 푸드에서는 다른 상품의 외장케이스에서도 SEW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 배려형 소재는 코스트가 들며 이용범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도입에 소극적인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곤약젤리 소다계 시리즈] 외장케이스에 있어서 SEW의 사용은 그 생각을 전환해 ‘약간의 코스트 업으로 환경 배려형 소재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소재로도 디자인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되었다. 이후에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에 공헌하고자 한다. [PW]



포장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포장이란, 무엇인가?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협회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주최: 한국포장학회


대학원

서적 안내

포장이란 무엇인가?

- 가격 : 12,000원
- 구입 문의

TEL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KOPA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사)한국포장협회